

한·중 기업간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가속화

- 두산중공업, 중국 최대 원전발주처 CNNC와 협력 약정 체결 -
- 대우인터내셔널, CNPC와 자원공동개발에 관한 MOU 체결 -

문의 | 지식경제부 중러협력과 (02-2110-5282)

-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공식수행원으로 활동 중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 28(수) 북경에서 한·중간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강화의 구체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기업간 원전협력과 자원공동개발 분야의 협력 약정 체결식을 주재하였다.
 - ◎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양국의 원전 업계간 협력이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하며,
 - ◎ 주요 에너지소비국인 한·중 양국간 국제무대에서 석유·가스 개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중공업과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간 전략적 원전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약정을 체결, 중국 신규원전 시장과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 금번 약정체결에 따라 양 기업은 중국 내 대량 발주가 예상되는 신형 원전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이 기득권을 가지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 ◎ CNNC는 향후 2020년까지 매년 원자력발전소 3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으로, 앞으로 두산중공업은 CNNC가 발주하는 중국 신규 원전의 주기기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CNNC에 매년 3억불 정도의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두산중공업은 CNNC가 중국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중 지난 1997년 중국 진산 3단계 원전에 들어갈 증기발생기를 수주한 것을 비롯해 2005년 중국 진산 2단계 원전에 들어갈 원자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중국 최초 신형 원전인 산먼 원전에 들어갈 AP1000 주기기를 수주한 바 있다.

- 자원공동개발분야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중국 석유천연가스 집단공사(CNPC)의 자회사인 CNODC(China National Oil&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rporation)에 “해외석유개발사업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 금번 MOU에 따라 양 기업은 미얀마 가스전 탐사광구(AD-7)를 시작으로 해외 유전개발 사업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율 안전관리 전기제품」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오디오·비디오제품 등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대폭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선정 추진

문의 |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2~5)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자율 비
중을 높이기 위해 5월 9일 오후 3시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자율 안
전관리 전기제품」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규제학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복사기·라디
오·TV 등 비교적 위해수준이 낮은 전자제품류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으로 제안하고,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류와 히터·모터를 부품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해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전기
제품에 한정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안전인증대상품목 :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실시

*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 :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만 받으면 판매가능

한국규제학회에서는 안전사고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기제품의 위해도를 요인
별로 분석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과 안전인증대상품목을 분류하였으며, 금번 공청회에서 이
에 대한 학계·소비자단체·업계의 의견발표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하
고, 이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09년 1월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EU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안전관리제도로써 사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한 제도이다.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 전기제품은 기존의 안전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준비 등이 필요 없어지고,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부담하는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어 2천여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4.25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과 -

문의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4)

- 정부는 4.25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 ◎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 ◎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음(기존사업자는 계속지원)
 - ◎ 아울러,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음
-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기준가격 조정
 - ◎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
 - * 기준가격(kWh당) : (현행) 677.38원 → (변경) 15년 590.87원, 20년 536.04원
 - ◎ 다만, 급격한 가격변경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 ◎ 아울러, 모듈수명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 지원기간은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되 금융시장에서 20년 장기금융상품을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0년부터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2009년말까지는 15년 또는 20년 가격을 사업자가 택일)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 ◎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 의무할당비

을,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금년중 확정하고,

- ◎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법을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여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
- ◎ 아울러 2010~11년의 기간중 RPS 도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
- ◎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RPS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4. 25 14:00 개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

전자산업진흥회, 주택관리사협회 주도로 “아파트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가전사 A/S요원이 아파트 에너지낭비 치료
삼성, LG, 쿠쿠 등 가전업체 A/S시 아파트 에너지절약 지도 및 정보제공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5422)

- 가전업체 A/S 요원이 아파트 에너지낭비를 치료하는 침병으로 나서게 되고, 아파트 관리인 중심으로 자율적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전개된다.
-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회원사인 삼성, LG 등 가전업체의 A/S 요원이 가정을 방문할 때 A/S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을 지도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에너지 닥터” 사업을 오늘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 ◎ 사업에 참여한 삼성, LG, 쿠쿠홈시스 등 가전업체 A/S 요원은 총 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금년말까지 매일 6만여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전국 곳곳에 전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 에어컨 필터의 주기적 청소, TV·모니터의 화면 밝기 30% 조절, 더러움 정도에 따라 진공청소기 강도 조절 등 13개 품목 가전제품 총 32가지의 에너지절약 실천방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 ◎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 “우리집 에너지절약 만병통치”를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홈에너지닥터가 금년 9백만 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가정내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예〉

품 목	실천방법	절감효과(kWh/월)
에어컨	필터 2주에 한번 청소	3.3
	1년에 한번 냉매 점검	18.7
TV	화면 밝기 30% 조절	2.5
진공청소기	청소면에 따라 속도 한단계 조절	4.1
컴퓨터	모니터 밝기 30% 조절(CRT)	1.2
세탁기	세탁물을 한데 모아 세탁 횟수 20% 절감	1.8
비데	절전모드로 설정	2.2

- 이와 병행하여 아파트 관리인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시범지역인 12개 아파트단지 주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교육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 아파트 부녀회와 협력하여 에너지장터를 개설하여 고효율형광등 및 멀티탭을 판매하며,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합시다! 가정 에너지절약”이란 홍보물도 상영할 계획이다.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관리공단은 5.22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5차 아파트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아파트 에너지절약 캠페인”의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 이 날 행사에서 가전사 A/S 요원과 주택관리사들은 안 쓰는 전기플러그 뽑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절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 ◎ 에너지관리공단은 행사장 주변에 “에너지절약 이동 홍보관”과 “에너지장터”를 개설하여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력낭비를 시연하고 가전기기별 에너지절약 실천방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이번 캠페인은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민간 협회가 발벗고 나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주도하고,
- ◎ 공공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기업들도 참여하는 민·관·기업 공동 참여형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2008년 에너지(-), 사랑(+) 캠페인 개시

우리가 아낀 에너지, 이웃 사랑으로 돌아와요

- 삼성전자, LG전자, 롯데백화점, 신세계 후원, 전국 건물 대상 접수 시작 -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5422)

- 여름철 에너지절약으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해 온 「에너지(-), 사랑(+) 캠페인」이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온다.
-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5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크리스탈홀 2층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범국민 실천운동 「에너지(-), 사랑(+) 캠페인」의 개막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 동 캠페인은 여름철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회사, 공공기관 등 건물이 전년 대비 전기를 5% 이상 절약하면
 - 미리 마련된 재원(금년 4억원)을 활용하여 절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건물 명의로 기부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신개념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다.

2008년 에너지(-) 사랑(+) 캠페인

- **참여대상** : 전국의 건물(아파트 포함)
- **추진방법** : 참여 건물이 7~8월중 전기소비량을 전년 동기대비 5%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참여 건물 명의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 **참여방법** : 에너지사랑방(www.kemco.or.kr/goevent)에서 인터넷 접수, 접수 후 추첨을 통해 후원사에서 제공하는 에어컨 등 경품제공
- **참여접수기간** : 2008. 5. 28 ~ 6. 30

○ 참여 건물 및 회사는 전기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함께 거둘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은 난방비를 지원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다.

- 작년의 경우 참여 건물 총 2,753개소가 전기 총 2,803만kWh를 절약하여 예산대비 6배에 달하는 약 3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 절약에 성공한 참여건물 명의로 총 4억원을 전국 1,90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바 있다.